

소그룹 교재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1. 찬양과 여는 기도

새 413 장(통 470) 내 평생에 가는 길

새 337 장(통 363)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복음성가) 주님여 이 손을 꼭잡고 가소서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창세기 29:21-30

3. 여는 질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부부, 연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했던 경험을 나눠 봅시다.

(연애하던 시절 청혼이나 구애하기 위한 기억들 중에 짧은 에피소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자가 짧게 샘플나눔을 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마음을 열고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최고 2-3 분 안에 얘기해 달라고 가이드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본문이해 (가능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한 문단씩 돌아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칠 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와 먼저 혼인을 시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레아와의 결혼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 칠 년을 더 일해야 하는 소식에 어안이 병병했을 것입니다.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을 향해 분노가 일어났지만 장인될 사람을 어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과정에서 똑같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칠일' 동안의 레아와의 결혼식 피로연을 해야 했습니다. 그 칠일은 야곱에게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삶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했습니다.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아온 야곱의 인생에 제동이 걸린 것이지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레아와 레아의 몸종, 그리고 라헬과 라헬의 몸종을 얻게 되었고 그 네명의 여인들로부터 태어난 열 두명의 자녀가 장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조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할 순 없으나,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크신 분이심을 발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불완전해 보이는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됩니다.

5. 말씀과의 만남: *(관찰질문-해석질문 2-3 개, 질문당 1-2 줄)*

1)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6-27 절)

(언니를 먼저 시집보내야 하는 풍습 때문에)

2)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긴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0 절)

(이번엔 라헬을 얻은 후에 칠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이전과 같은 칠 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일하는 일년은 행복했을 것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1) 최근 가정이나 일터에서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2) 분명 나의 실수나 잘못이었지만 나중에 그 일을 도리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7. 암송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8.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1) 요즘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가장 속상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9. 기도제목 나눔

10.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둘째주 소그룹 모임

제목: 사람을 떠나 하나님께로

1. 찬양과 여는 기도

새 446 장(통 500) 주 음성 외에는,
새 435 장(통 4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창세기 31:1-9

3. 여는 질문:

어릴적 가출했던 경험이나 부모님을 잃어버려 혼자 남겨진 기억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4. 본문이해 *(가능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한 문단씩 돌아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 빈 손으로 집에서 멀리 떠나왔으니 믿고 의지할 곳이 따로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은 외삼촌 라반 뿐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품삷을 열 번이나 변경할 정도로(7 절) 야곱을 속이고 욕심을 부렸지만 그래도 삼촌을 떠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대로 편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신의 그늘이 되어 지켜줄 이가 라반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베엘에서의 그 오래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걱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운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할지, 만나도 괜찮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삼촌 라반과 그의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야곱에게도 의지할만한 사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염려되는 상황과 직면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도 때로는 조건이 작동합니다. 변덕스런 라반의 말처럼 사람의 약속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만은 변치 않습니다. 그동안 라반의 집처럼 익숙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땅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5. 말씀과의 만남: *(관찰질문-해석질문 2-3 개, 질문당 1-2 줄)*

- 1)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1-2 절)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 2)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떠날 용기와 힘을 어디서 얻었습니까?(3 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 1) 의지하고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크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 2) 사람이나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7.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창 31:3)

8.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 1) 집을 떠나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부모님을 떠나 살게 되면 무엇이 가장 힘들것 같나요?

9. 기도제목 나눔

10.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셋째주 소그룹 모임

제목: 넉넉한 하나님 사랑

1. 찬양과 여는 기도

새 304 장(통 4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 293 장(통 414)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복음성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창세기 37:1-11

3. 여는 질문: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편애(긍정적&부정적) 받았다고 느낀 경험이나 사건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4. 본문이해 *(가능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한 문단씩 돌아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심각한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알고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지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로 불리지만, 자녀들 교육에는 일정 부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편애했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으며, 그것을 보고 자라서인지 야곱도 다른 자식들 앞에서 대놓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사려깊지 못한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요셉은 형들에게 무례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했고(2 절), 자기만 좋은 옷(채색옷) 입는 것을(3 절) 불편해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형들과 부모님에게 경배받아 높아지는 꿈을 조심성 없이 거만하게 두 차례나 그대로 전했습니다(5-6 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사람의 마음은 죄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그 죄성에 기름을 붓듯 불이 붙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며 가치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잖아도 네 명의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평생 마음에 상처와 원망이 많았는데 거기에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무례함은 형제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일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랑의 결핍을 잠재우고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넉넉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넓은 바다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영하듯 사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곱핍을 경험해도 이미 만족했기에 이미 넉넉하기에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5. 말씀과의 만남: (관찰질문-해석질문 2-3 개, 질문당 1-2 줄)

1) 야곱의 어떤 태도(행위)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했나요?(3,4 절)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에게만 귀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2) 요셉의 어떤 태도(행위)가 형들을 시기하게 했나요?(2, 5-11 절)

(2 절에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 합니다.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왕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고 형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철없이 이야기 함)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1) 가정이나 회사 혹은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했을 것 같은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감사제목을 기억하여 정기적으로 감사예물을 드리는 일도 나눌 수 있다.)

7. 암송구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8.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1) 부모님이나 형제들로부터 차별을 받은 것 같아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9. 기도제목 나눔

10.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넷째주 소그룹 모임

제목: 고난의 퍼즐이 맞춰지다

1. 찬양과 여는 기도

새 293 장(통 414)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새 301 장(통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복음성가) 주 은혜임을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창세기 45:1-10

3. 여는 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힘들어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간단히 나눠 봅시다.

4. 본문이해 *(가능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한 문단씩 돌아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고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는, 놀란 형제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제서야 요셉 인생에 있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전에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동생과 아버지를 생각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자신의 고통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형제들의 악한 행위를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으니 그 일로 너무 탄식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뤄가시지만, 동시에 인간들은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전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을 통해 형제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최고의 회개가 표현되었기 때문에 요셉도 형제들과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해진 것이지요.

요셉의 큰 울음 안에는 그간의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원망과 미움 등 모든 감정이 쏟아져 표현되는 동시에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 또한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알고 안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요셉의 고난과 아픔 못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상처와 두려움으로 그저 남

아 있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 안에 가시가 되어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를 것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다시 이해되고 해석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5. 말씀과의 만남: *(관찰질문-해석질문 2-3 개, 질문당 1-2 줄)*

- 1)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에 요셉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나요?(2 절)
(성 밖의 애굽 사람들과 궁중 곳곳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며 울었음)
- 2) 요셉이 형제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4-5 절, 7-8 절)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애굽에 나를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 1) 고난과 불행이라고 생각한 일이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 2) 주님없이 만난 고난은 들어갈수록 절망에 빠지는 동굴이 되고, 주님 손 잡고 만난 고난은 언젠가는 빠져나오는 터널이 됩니다. 요즈음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은 동굴처럼 느끼나요? 터널처럼 느끼나요?

7. 암송구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창 45:8a)

8.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 1) 요즈음 학교에서 제일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 2)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나요?

9. 기도제목 나눔

10.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